‘상월결사 정신’으로 풀어낸 ‘부처님 생애’

동국대 〈붓다〉 발간… 윤재웅 총장 · 박기련 사무총장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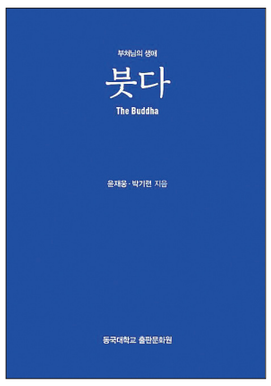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에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법 화두의 근간에는 ‘움직이는 불교’와 ‘사부대중 불교’가 있다. 움직이는 불교는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전법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제언이고, 사부대중 불교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가 한국불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당부다. 이 같은 제언과 당부는 상월결사와 동국대 건학위원회 등에 그대로 투영돼 대학생 전법 불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승 스님은 ‘움직이는 불교’와 ‘사부대중 불교’라는 기치를 재현하기 위해 재미있고 친숙한 ‘부처님 일대기’ 출간도 고민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려면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회향한 직후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를 발원하며 ‘부처님 일대기’ 발간불사도 시작됐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24년 5월 29일 자승 스님이 발원했던 현대적 언어로 쓰여진 ‘부처님 일대기’ 〈붓다(The Buddha)〉가 세상에 나왔다. 집필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함께 참여했다.

〈붓다〉는 1978년 산하기관인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부처님의 생애〉를 저본으로 주요 사건들을 참고하되, 구성과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니까야〉 〈아함경〉 〈본생경〉 〈대열반경〉 등 여러 경전과 조계종 교육원의 〈부처님의 생애〉(2010) 〈샤카무니 붓다〉(2010) 〈인간 붓다〉(2010)를 비롯한 기존 발간된 단행본도 두루 참고해 오류를 최소화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강조했던
‘사부대중 불교’ 근간해 저술돼
비구니 · 재가제자 이야기 확대
‘입멸’ 앞에 배치해 몰입도 높여
5월30일 정각원, 봉은사서 봉정


새로 발간한 〈붓다〉를 손에 든 윤재웅 총장(사진 왼쪽)과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5월 30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생신 다례재’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붓다’를 자승 스님 영전에 봉정하고 있다.

윤 총장과 박 사무총장은 2021년부터 집필에 들어갔고, 가제본이 나오기까지 꼬박 2년여가 걸렸다. 가제본을 받아본 자승 스님은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기간 동안 일과 이후 매일 읽고 감수하며 〈붓다〉 발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이처럼 〈붓다〉는 자승 스님의 원력과 상월결사 정신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붓다〉는 철저히 경전에 입각했지만, 보다 과감한 상상과 스토리텔링, 문학적 표현 기법을 더해 순간순간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 묘사했다. 책을 읽는 작금의 독자들이 붓다의 일생을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주안점을 뒀다.

붓다의 80년 삶을 관통하는 탄생과 성도, 전법, 입멸이라는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재배치한 점도 새로운 시도다. 붓다의 생애를 다룬 모든 경전들은 입멸을 마지막 사건으로 다루지만 〈붓다〉는 마지막 사건인 입멸, 즉 열반의 순간을 가장 앞쪽에 배치했다.

윤 총장은 “부처님께서는 성도 이후 45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행하셨고, 전법의 최종점은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것이었다”면서 “자승 스님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치신 것도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전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천막결사 이후 자승 스님의 첫 일성은 인도순례였다. 스님은 그 제안을 하시며 우리나라 부처님 생애 책을 전부 읽으셨고, 좀 더 쉽게 대중이 읽을 수 있는 부처님 일대기 발간을 역설했다”며 “스님의 열반 이후 잠시 중단됐지만, 이사장 돈관 스님의 격려와 관심으로 자승 스님 70세 생신에 맞춰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제1부 ‘열반의 길’, 제2부 ‘깨달음의 길’, 제3부 ‘전법의 길’로 구성됐다. 각 챕터는 여러 개의 장으로 다시 분류해 정리했다. 특히 제3부 ‘전법의 길’에서는, 전법을 위해 걷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전했던 붓다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붓다와 제자들, 붓다와 주변인들과의 대화도 생생한 현대적 언어로 표현됐다. 특히, 비구니 제자와 재가 제자들의 이야기 대폭 확대된 것도 자승 스님이 강조한 ‘사부대중 불교’가 반영된 것이다.

이야기의 흐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시들도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윤 총장은 책에 게재된 시들 중 108개의 시를 추려내어 시집 〈열반은 큰 즐거움이어라〉로 엮었다. 이는 〈붓다〉의 요약판이자, 붓다의 80년 생애를 보다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한편, 〈붓다〉는 5월 30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생신 다례재’에서 자승 스님의 영전에 봉정했다. 앞서 동국대는 교내 정각원에서 〈붓다〉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자승 스님 영전에 헌향·헌화했다.

무형유산위원에 원명·혜일·정운 스님

국가유산청, 5월 22일 위촉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도



5월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무형무산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 사진=국가유산청


원명 스님 혜일 스님 정운 스님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에 원명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과 혜일 스님(합천 해인사 주지), 정운 스님(보령 세원사 주지)이 위촉됐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제5대 무형유산위원회를 구성해 5월 2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무형유산위원회에는 3명의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원명 스님은 전통예능분과에, 혜일 스님은 전통지식분과에, 정운 스님은 전통기술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도 전통지식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위원 27명과 전문위원 4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5월 16일까지다. 위원장에는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 필요성이 높은 무형유산 정책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전승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무형유산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정책,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해제,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유산청 자문기구다. 임은호 기자

스님이 만든 ‘교리 영상’ 함께 봐요

조계종 포교원,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일환

‘반야와 배우는 교리’ 제작 보급
크리에이터 혜장 스님 직접 참여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대중에 전달하기 위해 영상 ‘반야와 함께 배우는 불교교리’를 제작해 보급에 나섰다.

포교원이 제작한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을 활용한 이번 콘텐츠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인과법 △연기법 △중도 △명상하기 등 총 5개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본영상은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이 직접 참여해 만든 콘텐츠로, 포교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buddha1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야와 함께 배우는 불교교리’ 장면.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불자 및 일반인들이 보다 친근하게 불교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할인가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할인 식물물초
7일초 ····· 60,000원
5일초 ····· 65,000원
3일초 ····· 65,000원
1일초 90개 ····· 75,000원
15일초 12개 ····· 95,000원
할인 국산 식물성 팜초 (최상급)
7일초 20개 ····· 95,000원
5일초 24개 ····· 100,000원
3일초 40개 ····· 100,000원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할인 수입양초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밀대 50개 55,000원
할인 국산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매장에 오신 손님 대폭 할인됩니다.
재고 소진시까지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